상실감은 넘고 획득감은 버리고

(사무엘상 30:11~31)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상실감은 넘고 획득감은 버리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상실감은 넘고 획득감은 버리고'
대한민국에 한때 바람처럼 회자되었던 수저론이 등장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수저까지의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흙수저'는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수저론과 연관된 신조어 중에 좀 편향된 느낌을 들게 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ll(지옥)과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말은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층의 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한 유행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조선 단어에 대한 시선이 엇갈립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모바일융합과 민경배 교수는 "청년세대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자각했다는 반증이다"라고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견해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각으로 본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헬조선 단어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곽금조 교수는 헬조선을 "분명한 개인의 잘못까지 사회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무조건 사회 탓으로 돌리는 체질과 경향이 이 단어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

해 민경배 교수의 발언은 상실감에 합당한 표현이고, 곽금조 교수의 발언은 획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동안에 생겨난 말이 아니냐는 것인데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구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헬조선을 바라보고, 헬조선 단어에 대해 엇갈리는 두 시각을 본다면 상실감도 죄악이고 획득감도 죄악입니다. 참 신앙인은 내가 무엇인가를 잃는 상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내가 노력하여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획득감이나 성취감 쟁취감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악 된 마음 상태입니다. 상실감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상실감과 획득감이 왜 죄악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말렉에 의해 다윗과 추종자들의 거점이었던 시글락이 약탈을 당했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추종자들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 자신도 가족을 잃은 상실감의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에 더해 추종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실감에서 진짜 충격적 사건을 자각하여 하나님께로 빠져나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골리앗이나 사울 앞에서도 잃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실했음을 자각하고 가족을 잃은 상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상실을 충격으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큰 상실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선민이고,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면 마치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비치볼이 태평양의 폭풍에도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상황도 누를 수가 없고 반드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멸시키고 한 사람도 상실됨이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2절과 19절에서 반복하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되찾았으며 심지어는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한 것 까지도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실과 획득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지만 본문은 상실감과 획득감이 모두 죄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인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는데 '수애'라는 여배우가 나왔습니다. 달동네에서 아버지가 구두를 깁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효녀라고 칭찬을 합니다. 신앙인의 경우에는 이처럼 달동네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선적

인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나의 영역이 됩니다.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 상실된 충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더 큰 충격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들이 아무리 도망을 갔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갖고 있음으로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변방의 조그만 시글락 성읍을 얻어 살고 있는 이 상황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블레셋 나라 전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의 그늘아래에 오히려 아기스 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칭기즈칸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 대제국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늘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데 전세가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상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심리학적 측면서도 상실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갖게 될 때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획득감(소유의식)이 생겨야 하는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마음에 채운 자는 이 세상에서 상실과 획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게서 붙었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달동네에서 태어난 아가씨가 유명한 여배우가 되어서 재벌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과 같고 재벌의 모든 능력과 영역이 미치는 한계가 이 아가씨의 영역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게 되면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실이 없게 됩니다. 가졌다고 느낄 때에만 상실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져서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실감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추상적인 명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거리를 떨어뜨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2절과 19절에서 복음적 신앙 안에서는 상실감이 불허됨을 강조합니다.
2절과 19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라고 하는데 이 구

절들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첫 번째 현실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상실이 일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획득감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끄는 무리 600명 중에 피곤했던 200명을 제외한 400명이 가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들에 더해 그들의 물건까지 다 획득하여 돌아오게 되고, 다윗이 남았던 자들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남아있던 자들에게 자신의 전과를 자랑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비류들(불신앙적 존재들)이 전쟁에 불참한 자들에게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분배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라고 하며 단칼에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 번째 현실로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획득한 것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획득한 것일 뿐이므로 장갑에게는 획득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불신앙인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는데 획득감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반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획득감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해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일 뿐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마음에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자식의 현실이 먼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죄악이고, 사업장의 현실이 먼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죄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획득한 것이므로 십일조조차 하지 않고 생색내느라 감사헌금조로 조금 하는데 자신이 획득한 것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획득감으로 포장된 내 수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놓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고루 나눠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시글락에 가까이 있었던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전리품을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상실감도 획득감도 죄악이면 신앙인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요?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 현실로만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현실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모시게 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로 한턱을 내게 됩니다. '한턱을 낸다.'는 것은 반드시 기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낸 것은 한턱을 내는 것인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전쟁에서 이긴 기쁨이 아닌 여호와의 원수를 무찌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심을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을 수단으로 획득

한 것을 나눕니다. 획득했으나 획득감은 생기지 않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기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다 장로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을 물리친 결과로 인한 여호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자들을 찾다보니 가까이에 있었던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인데 한턱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면 상실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은 상실의 순간일지라도 내 마음에는 상실에 대한 감이 없어집니다. 한턱내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순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차면 획득감도 없습니다. 생각도 계획도 능력도 행동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획득하게 하실 뿐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획득감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음에는 변함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게 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수단 삼아 한턱내는 평생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획득감도 상실감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된 자들에게는 죄악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짐으로 그 기쁨이 주어지고 주어질 모든 것을 통해 한턱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